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분	학위과정	성명	이 민 혜
제 목	우여곡절 끝에 아들과 같은 학번이 된 엄마의 대학생활기		
우여곡절 끝에 아들과 같은 학번이 된 엄마의 대학생활기			
<p>2015년 12월, 아들이 대학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은 아마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즈음, 나는 아들 몰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나의 수입으로 감당이 안 되는, 갑자기 나의 가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떠오른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라는 낱말이 그즈음 무거운 하늘을 인 것 같은 기분을 나에게 안겨주고 있었다. 아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대학만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해 논 상태였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가운데 사전 지원결과를 보면 수석입학이 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은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었고 생활비와 방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게 당연했다. 겁이 났다. 거기다가 남들은 여섯 개씩 원서를 쓰는데 고집스럽게 아들은 딸랑 두 개를 썼다. 몇 개 더 써보는 것도 괜찮은 데, 야속한 아들, 떨어지면 재수해야하는 데,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소신을 존중하기로 했다. 살얼음 판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던 시절이었다.</p> <p>내 삶에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마치 큰 파도처럼 늘 나를 위협하고 있었고 나는 대책도 없이 내몰려 불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삶의 여유는 없었고 하루 하루 힘들고 어려웠다. 그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소망과 달리 나의 기대와 달리 나의 눈물과 노력은 흩어지고 결과는 미미했다. 그렇게 나의 시간이 청춘이 흘러갔고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에 원서를 쓰는 때가 온 것이다. 아들은 국립대를 가기로 했고 서울이 아닌 부산대학교를 지원했다. 합격했다. 고맙고 눈물이 났다. 다행스럽게도 아는 지인을 통해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 대학등록금 문제 또한 잘 해결이 되었다.</p> <p>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아들도 소신대로 지원했으나 내심 걱정한 듯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그렇지, 걱정 안할 수는 없는 일인 게 분명했다. 함께 합격을 기뻐</p>			

하던 중, 등록금 지급이 문제가 없는 지 보려고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살피고 있었다. 그래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때, 눈에 띄는 광고문구가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다.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00월 00일~00월 00일까지 2차 접수'라는 배너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호수의 물결처럼 흔들렸다. 반짝거리는 물결에 일렁이는 햇살처럼 내 마음에 무언가 일렁거렸다. 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지나가는 무엇이 있었다. '나도 대학을 졸업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다. 좋은 예감이 확 올라왔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남아 있었다. 나의 손이 저절로 포털 사이트를 열고 대학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당연 사이버 대학교를 검색하고 있었다.

몇몇 대학을 살펴보던 중 한양사이버 대학교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홈페이지 열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고 입학사정을 살펴보니 더욱 마음에 들었다.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열어보다 보니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나는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일사천리로 원서를 쓰고 자기 소개서를 쓰고 구비 서류를 떼고 이런 저런 접수를 완료하고 국가 장학금 신청까지 마쳤다. 학과는 영어학과를 지원했다. 이틀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은 누가 안 시켜도 잘한다.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아들과 동시에 대학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영어학과를 지원한 것 때문이었다. 오랜 소망이 되어버린 대학 졸업이 현실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대학을 2년 다니고 중퇴하고 2년 직장 다니다 결혼했다. 나중에 계속 공부하고 대학원도 다니라던 남편의 말에, 그러면 되겠다는 막연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혼했다. 남편을 무작정 신뢰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혼자 믿은 채, 복학하려던 마음을 접은 것이었다. 잘못 된 결정인 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남자는 늑대라는 걸 몰랐던 것이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는 기 켈이다'던 외삼촌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던 외숙모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던 선배 언니들의 말들을 그 때, 왜 하필 참고하고 따랐던 것일까. 후회.

그렇게 내 삶은 조금씩 나를 속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만 몰랐다 내가 대학을 마치지 못할 줄을. 결혼은 지붕 없는 집에서 비를 맞고 사는 것이다. 내가 바라던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는 내 남편을 만나고 산산조각이 났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아득한 수평선 너머 그 어딘가로 떨어져서 내 가시거리에서 확실히 사라져갔다. 열심히 애 키우고 살림하고 시댁 친정 챙기고 그렇게 빛이 보이지 않던 시간도 확고 통의 흔적들을 남기고 흘러갔다. 십년에 한 번 내가 하소연을 하면 남들은 왜 그런 결혼을 했냐고 했다. 그 뿐이었다. 모든 책임은 내 몫이었다.

힘들어도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일념으로 어려워도 꺾꺾 참다 아들이 유치원 졸업할 때를 기다렸다가 직장을 들어갔다. 서른을 눈앞에 둔 즈음이었다. 핸드백을 댔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남편은 돈을 벌려고 가서 돈을 쓰고 왔던 시절, 언제나 남편은 내편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시댁 또는 친구편일 뿐, 나는 일을 했다. 아이가 자라니 들어가는 것이 점점 커졌고 나의 많지도 않은 수입은 생활비와 들통 난, 남편이 몰래 키워가던 빚을 갚는 데에, 이자 갚는 데에 다 들어갔다. 마침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선물해준 많은 빚을 대신 떠안고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단칸 월세 방에 남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며 직장을 다녔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은 나에게 큰 치명타였고, 하고 싶은 일은 졸업장이 없어 지원을 못했을 뿐 아니라, 웬만한 내가 일할 만한 곳은 졸업장을 달라했다. 나는 많이 좌절했다. 가뜩이나 아이를 데리고 살림하며 취업할 곳도 없는데 졸업장까지 없어 막막하였다. 빚과 생활비 때문에 나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는데 걸리는 것이 많았다. 나는 아이와 일 둘 다를 선택했다. 그것은 두 곳 모두에 만족할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래도 간신히 내가 시작한 일은 학원 강사였다. 대학 때 했던 학습지 알바가 생각나서 영어 학원 쪽을 알아보았고 내가 일할 수 있겠다 싶은 곳을 발견하였고 취업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경력자로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졸업장 없는 영어 강사로서 답 없었던 시절과 또 영어 전공자가 아닌 것에 대한 부담은 졸업을 해야겠다는, 영어전공자가 되어야겠다는 갈망을 가슴 깊은 곳에 자라나게 했다. 이 바닥이 워낙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학과를 졸업했는지가 치명적으로 취업에 우위를 가르는 분야이니까. 나름 인정받는 강사로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학부모들 중 누군가가 영어전공자냐고 물을 때면 답이 없었다. 전공 안했다고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이 상처를 입고 재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장벽을 보았다. 나는 겁 없이 영어를 전공해야만 했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대보험도 안 되는 곳이 강사 일 있었는데 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내손으로 키우는 것을 원했고 그래서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오후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학원 일은 내 사정에 딱 맞았다. 그래서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해 왔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은 사치였다. 그냥 일했다. 그래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다행이었다. 아이들은 내 진심을 잘 느꼈다. 잘 통했다. 그래서 일이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 대학 중퇴자로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녀야했고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그것도 아이가 대학을 가야할 때에는 더욱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그렇게도 내게서 멀기만 하던 손에 잡히지 않던 꿈같은 일이 마침 일어났다.

내가 드디어 갑작스럽지만 대학을 들어가고 영어를 전공하게 된 것 아닌가. 이게 뭐지, 아들 대학 입학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던 내 앞에 아들과 동시에 대학에 가게 되는 선물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기쁨 반 아픔 반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나는 이제야 가게 됐나 라고 생각하면 아프고 아들과 함께 대학을 가고 영어를 전공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뻐다. 사실 그랬다, 정말로 아들과 나는 같은 2015학번이 되었다. 웃음이 났다. 절반의 웃음. 그래도 한번은 의도적으로라도 기쁜 것처럼 콩 콩 콩 뛰어들었다. 사실은 기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상황은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했다. 살림하고 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 하는 더 바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긴장이 되었다. 아들에게 아들이랑 대학에 가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아들은 황당해서 어이없이 웃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나랑 같이 대학에 들어가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왜 갑자기 대학을 갈까? 나의 선택이 궁금해 보였지만 묻지는 않았다. 도대체 왜 그런지 신기해하며 '으이그' 한마디 했다. 그리고 아이는 뭐라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어린나이가 아닌가.

학기가 시작되었다. 6과목을 신청하고 너무 행복했다. 수업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첫 수업을 들었다. 수업은 두 시간 가량 되었다. 만족스러웠다. 사이버로 수강하는 일이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겠지 라는 나의 선입견은 일 순간 무너졌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오프라인 대학에 다닐 때는 듣는 등 마는 등 한교시가 끝나고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기 일쑤였는데 사이버 강의는 오히려 내용도 알차고, 교수님들도 열정을 다해 강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시 돌려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전달력도 탁월했다. 놓친 부분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대 만족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매일 한 두 강의를 기본으로 들었다. 서너 시간이 걸렸다. 아침에 눈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 집중을 다해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직장 스케줄 업무를 다 챙기고 학교 스케줄, 시간표, 시험 일정 등을 챙기고 거기에 맞추어 수업을 들었다. 항상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이렇게 첫 중간고사를 맞이했다. 첫 중간고사를 보면서 시험이 장난이 아니구나하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다. 사이버 대학의 시험을 쉽게 생각했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것이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시험 난이도였다. 나는 기억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시험기간을 그냥 놓고먹은 기억이 난다. 대충 공부해도 A, B, C 학점을 받았다. 그건 지금 생각

해 보면 시험도 아닌 것이었다. 반면에 우리대학의 시험은 짧은 시간, 많은 문제, 주관식과 객관식 혼합문제, 그리고 사고 형 문제 등,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 수도 없는 문제를 풀라고 내놓은 수준이라고 해야 할 까. 25분에 60문항을 풀었던 기억이 난다. 적당히 공부해서는 점수를 낼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글로 된 교양과목은 시간과 문항 수에 그렇게 딱딱하지 않지만 특히 전공은 장난 아니었다.

첫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는 결심했다 '계획을 세워서 시험일정에 맞추어 공부하자' 그래서 나름 먼저 할 과목 나중할 과목들을 정하고 점수 포인트가 높은 배점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난이도 높은 과목들은 더 많이 복습하는 시간표를 짰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보통 서너 번 까지 복습을 했다. 그리고 2학기부터인가 7과목씩을 공부하기로 했고 욕심을 내서 TESOL과정을 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시간표를 짤 때와 수강신청 시에 반영했다. 나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다. 그렇게 하니깐 공부하기가 훨씬 편했고 항상 일정보다 앞서서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나머지 과제 쪽지 등, 수시로 나오는 일정들도 미리미리 소화할 수 있었고, 물론 직장 업무도 잘 할 수 있었다.

이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자주 새벽까지 공부하곤 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역효과도 있었다. 시험기간에는 어김없이 머리가 과부하 상태가 되었다. 공부했던 많은 내용은 하얀 백지로 변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 할 때,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쳐야 하는 데, 머리는 립스틱을 꺼내라 명령하는 데 손은 립스틱을 기억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읽으면 저절로 풀렸다. 많이 보았던 것의 조각들이 정확하게 서로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양극 자석과 음극자석이 서로 당기는 것처럼. 나는 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라 정말 즐겁게 신나게 공부했다. 그렇지만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브랜드가치 1위가 될 만하다. 학생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정말 교수님들도 언제나 열강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내가 특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는 재정적인 것이었다. 나는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그러려면 성적을 유지해야만 했다. 대학의 낭만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내 사전에는 없었다. B학점이상을 유지해야 했으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이기에 열심히 했다. 압박밥솥으로부터 뿔어져 나와야 할 김이 내 머리에서 나곤 했다. 다른 이유는 TESOL과정을 수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았다. 고진감래.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

나는 졸업할 때까지 올 장학금으로 다녔고, 재학 중 성적우수상을 여러 학기에 받게 되었고, 4학년 1학기에 조기졸업을 하였으며, 당연 TESOL과정도 수료하였다. 졸업시에 나는 4년 평균평점 4.41로 졸업하였고 성적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2018년 8월 18일 나는 빛나는 졸업을 했다.

안타까웠던 것은 존경하는 레지교수님을 포함 전공교수님들을 아직도 한 번도 뵈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대학의 전공 교수님들을 정말 좋아했다. 졸업식에는 꼭 가리라고 결심했지만 결국 못 갔다. 그 날에 일을 했고 더더욱 나는 지방에 살고 있었다. 레지 교수님의 오프라인 강의에도 한 번도 못 갔다. 얼마 후 집으로 택배가 왔다. 나의 학위증과 TESOL 수료증과 우수상이 들어 있었다. 기쁘고 감사하고 죄송했다. 절친 1인에게만 살짝 보여주고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상들을 보고 나의 노력과 눈물의 시간들을 떠올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오직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열심히 했기에 나만이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나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할 것이니까. 남을 위한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온 열정을 다해 했기에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만이 나를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학교 들어가기 전과 비교하면 많은 내적 성장이 있었고, 영어에 대한 이해가 훨씬 풍성해졌음을 인정한다. 나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배우기를 좋아한다. 영어는 그런 의미에서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아무리 공부해도 질리지 않고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드러내는 언어다. 언어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역사 정치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배우게 된다. 이제 나의 일차 계획은 내년에 예쁜 영어공부방을 시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재밌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동화를 번역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마지막은 배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무언가를 배우면 내일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 문을 지나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배움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 감사합니다. -